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11.12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,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 기관 참여 제한 도입(11.11)

- EU는 2026~27년 호라이즌 유럽의 절반에서 중국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. EU는 특히 보건(CL1), 사회를 위한 민간 보안(CL3), 디지털·산업·우주(CL4) 분야에서 중국 기관 참여를 금지할 예정
- 해당 조치는 중국 기관의 지식재산(IP) 무단 이전 및 '민군융합' 전략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
- 중국 '국방 7대 대학 그룹(Seven Sons of National Defence)'은 프로그램 전 분야에서 완전 제외 예정(이 대학들은 중국 공업정보화부(MIT) 산하로, 군사 활용 목적의 과학 연구를 수행)
-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의 장비 및 실험시설 접근이 차단될 경우 유럽 연구가 뒤쳐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. 반면 군사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배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존재

○ AI 활용으로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 수 급증 ... 성공률 하락 영향(11.11)

- 2025년 호라이즌 유럽에 제출된 제안서 수가 폭증하면서 일부 과제의 선정률이 2%까지 하락. 제안서 급증 현상은 보건 및 문화 클러스터, 에라스무스+, LIFE 기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
- 덴마크 에겔룬드 고등교육과학부 장관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생성형 인공지능(AI)의 확산을 지목. 연구비 축소 등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
- 다양한 맞춤형 AI 도구가 등장했으며,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구 질문 정제, 영향력 기술, 양식 맞춤 등 다양한 용도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
- 수준 높은 제안서 작성, 비영어권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에 대한 기회 평준화 효과 등 AI 도구 활용의 긍정적인 영향도 존재

- (기타) ▲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, 한국과 AI 표준화 협력 강화(11.3) ▲스위스,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정 서명(11.10) ▲오스트리아 연구장관 "트럼프식 '대학 예산 전기톱' 장치, 유럽에서도 모방될 수 있어"(11.06) ▲ERC Synergy Grant, 66개 연구팀 지원(11.6)